

국내 포장기술 발전에 일조할 터



박 현 상 / 플레이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가 올해 3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1주간 진행한 제1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총 55명의 포장기술관리사가 배출됐다. 이 가운데 연포장 전문업체 플레이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박현상 씨가 총점 1백점 가운데 96.5점을 획득, 1등으로 수료하는 기쁨을 가졌다.

“회사분들을 비롯해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합격에 대한 기쁨도 크지만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로서 책임과 실력향상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박현상 씨는 현재 디자인에서 제작, 납품, 사후관리까지 하는 연포장관련 전문업체인 플레이어에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Project Coordinator)로 제품 QC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세계시장에서의 대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늘 직원들의 실력과 자질 향상에 신경을 쓰는 회사 방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포장 전반에 걸친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에 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포장분야의 광대한 영역을 정리하고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주위 분들의 격려와 채찍질로 11주간 순조롭게 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현상 씨는 11주간의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받으면서 온/오프라인교육을 함께 병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한다.

“오프라인교육은 직접 교육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 만큼 강사와 면대면으로 궁금점을 바로 해소하고, 짧은 시간 제품/정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온라인교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오프라인교육에 비해 비교적 충분한 교육기간이 주어지므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반복학습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현상 씨는 현장에서 근무해 온 포장업계 원로들이 오래된 노하우를 글로 표현해 후학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참고서는 없을 것 같으며 원로들의 실력과 노하우를 인정받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지적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가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상 씨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포장의 중요성이 증대해 온 만큼 ‘포장인’으로서 국내 뿐 아닌 국제적인 마인드의 자긍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수준 높은 제품의 향상과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판매경쟁 속에서 제품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포장의 방법에 따라 상품의 가치 높일 수 있는 만큼, 그는 국내 포장기술 및 개발에도 일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ko]



박 원 서 / (주)유상 연구개발팀 사원

(사)한국포장협회가 실시한 제1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주)유상 박원서 씨가 총점 1백점 가운데 91.9점으로 성적우수자로 수료했다.

현재 (주)유상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원서 씨는 연포장부문의 재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재직 기간이 짧다 보니 배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응시하였는데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얻어 기쁩니다. 지난 11주간은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는데 솔직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장의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식품 포장에서부터 공업포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습 기회를 주신 (주)유상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원서 씨는 향후 포장기술관리사의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포장재료 제조업체로서 우수한 품질의 포장재 제품생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사내에서의 능력 향상과 흥미유발을 위해 교육제의를 받아 수강하게 된 그는 처음 11주간의 교재를 한꺼번에 받고 방대한 양에 당황했다고 말한다.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보니 처음에는 정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는 “개발부팀장님과 부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현재 일하는 분야에서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원서 씨는 제품 설계 과정에서 결과를 이론을 바탕으로 미리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측만 가지고 설계하면 예상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과정에서 이론적인 교육과 함께 현장실습이나 현장교육프로그램이 병행되면 좀더 효과적인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 같다고 밝혔다.

종합과학이자 다양한 학문의 총체적 집합체인 “포장”을 공부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지식이 없어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그는 사진이나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재내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에 안주하고 않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실천하여 포장기술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는 박원서 씨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포장인으로서 끊임없이 공부할 터

윤 석 우 / 신영화학 기술개발부 대리

제1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총 1백점 만점에 91.4점을 획득, 우수성적으로 수료한 신영화학 기술개발부 윤석우 대리는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성적에 놀랐지만 그 동안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라비아 잉크 제조 회사인 신영화학에 재직 중인 윤석우 대리는 품질 개선 및 신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사에서 월간 포장계를 매달 구독한 덕분에 평소 포장 기술 관리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통신교육 과정을 통해 그라비아 잉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이것을 계기로 여러 분야와의 연계를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11주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주 한 가지 과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업무와 병행하기 힘들었다는 그는, 평소 주말에 과제를 했으나 집안 경조사 등이 있을 때는 평일 퇴근 후 공부해야 해서 벅차기도 했다고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윤 대리는 통신교육 과정이 포장 전 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만큼 기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교육교재에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포장인”들간의 정보 교류가 미미하다는데 늘 아쉬움을 느낀다는 그는 협회차원에서 포장관련 분야의 사람들과 다양한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고 정보 및 관련 기술을 공유해서 상호 발전을 하는 좋은 취지의 모임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포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윤석우 대리.

“30여년을 포장업계에 근무하신 분께서 아직도 공부 중이시라며 저에게 평생을 노력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항상 노력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포장업계를 이끌어 나갈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새로운 포장재 발굴 박차

김갑수 / 맞춤박스 경영지원팀 팀장

“뜻밖에 우수수료자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함께한 직장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제1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총점 1백점 만점에 91.4점을 획득한 김갑수 맞춤박스 경영지원팀 팀장이 우수수료자로 선정됐다.

김갑수 팀장은 현재 맞춤박스에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맞춤박스는 주문제작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완비한 업체로 소량 및 대량 주문제작을 공급하고 있다.

맞춤박스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공부를 심도있게 하고자 늘 월간 포장계를 비롯한 포장협회사이트를 종종 방문했다는 김 팀장. 그는 직장동료와 함께 포장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안,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쳐 매일매일 교재와 따로 참고서적을 뒤져가며 열심히 하였으나, 차수가 더해 갈수록 회사일이 바빠지게 되어 마감 직전에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비밀비재



했던 것 같다”는 그는 “생소한 용어들과 기계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으며, 한글파일로 과제를 작성하고 그것을 스캔하는데, 회사에 스캐너가 1대 뿐인 관계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했던 것이 기억 남는다”고 전했다.

김갑수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기간 동안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협회 웹사이트 내에 ‘포장기술관리사 Q&A란을 신설하거나 관련분야에 종사자들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포장기술관리사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김갑수 포장기술관리사는 앞으로 새로운 포장재를 발굴하여 회사 매출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